



안양공장

한국제지 50주년 발자취

산은 푸르게 경영은 투명하게 - 조림 1위 기업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제지는 건설한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한 인쇄용지 전문생산기업이다. 지난 1958년 설립 이래 다양한 인쇄용지를 개발하고 품질제일주의 정신으로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2006년에는 고급 복사지 브랜드 ‘하이퍼 CC’를 출시하여 국내 복사지 시장 진화를 선도하는 등 과감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재무구조도 우수,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 보유비율)이 1000% 이상에 이르는 등 안정적이고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굳게 자리매김했다.

지난 2월 50주년을 맞아 한국제지는 국민기업으로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앞세워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자고 다짐했다. 50주년 기념행사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제지 발전사 50년 전시회 관람, 다과회 등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주관으로 한마음축제가 열려 새로운 50년을 향한 힘찬 출발을 자축하기도 했다. 한국제지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진으로 50년사를 되돌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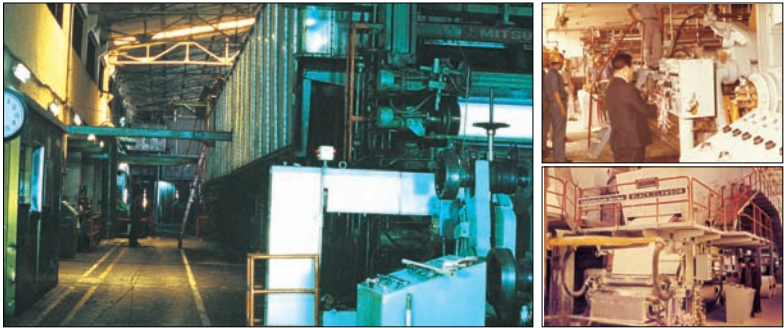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온산공장



1 한국제지 1958~1988년



1958년 한국특수제지공업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제지산업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1960년 준공된 안양공장은 초지 1호기 설치를 시작으로 초지기 3대와 코터 2대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백상지, 중질지, 특수지, 아트지, 가공지 등 거의 모든 지종의 인쇄용지를 생산하며 1998년 폐쇄될 때까지 현재의 한국제지가 있게 한 성장의 산실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1966년 현재의 이름인 '한국제지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1967년에는 회사상징도 새 이름과 이미지에 걸맞게 바꾸었다.

2 한국제지 1989~1998년

엠블럼 기업 슬로건 발표

산은 푸르게, 경영은 투명하게
조립 1위 한국제지

한국제지(주)는 2008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기업슬로건을 발표했다. 50주년 기념 엠블럼은 종이 만들기 외길을 걸어온 한국제지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엠블럼과 나란히 배치된 '산은 푸르게, 경영은 투명하게 - 조립 1위 한국제지'란 기업 슬로건은 자연을 생각하는 한국제지의 친환경 기업정신과 투명경영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인쇄용지 공급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고 한국제지는 본격적으로 채산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온산공장을 1989년 준공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인쇄용지 업체들이 생존과 도약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를 맞이했다. 먼저 1993년 반월공장에 생산기반을 두었던 카툰팩 사업부를 별도법인인 (주)한국팩키지로 분리, 독립시켰다. 나아가 온산공장 생산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1998년 창사 이래 소멸을 다한 안양공장을 폐쇄, '온산 단일공장 체제 구축'이라는 외형적 변화를 꾀했다.

3 한국제지 1999년~현재



이 시기에는 경영의 내실을 공고히 다지는 한편 외형적으로도 획기적인 도약을 이룩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시스템화의 가치추구와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에, 2002년과 2003년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육성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2004년부터는 자율경영 확립에 힘을 쏟았다.

생산하는 중요 제품의 품질차별화를 통해 범용의 굴레를 탈피하고자 고선수 인쇄가 가능한 아트지(엑스프리)로 전환하였으며, 백상지와 복사지는 뉴크린 유광지와 하이퍼CC 제품군으로 대체하였다. M-매트지도 인쇄품질을 한 단계 끌어 올려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 시기의 외형적 변화의 핵심은 초지 4호기의 증설이다. 이를 통해 '연산 52만톤' 생산능력의 단일사업장을 구축해 국내 인쇄용지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